



해 외 양 계 뉴 스

태국

음악은 닭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태국의 트랙컨 퓨티폰 지역에서 양계업을 경영하는 분스리(55세)씨는 닭들이 음악을 듣게 되면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4년전 양계장안에 라디오를 설치하여 음악소리를 들려주는 순간 모든 닭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음악을 멈추는 순간 동작이 멈추는 것을 발견하면서 닭들이 음악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후 음악을 계속 들려준 결과 성장을 증가, 폐사율 감소 등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 육계의 경우 출하일을 10일 앞당길 수 있었고 산란계의 경우 약 4주정도 산란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닭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는 태국음악, 서부음악이었으며 빠른곡 보다는 느린곡을 좋아하는 것으로 분스리씨는 밝혀냈다.

북한

도계장 건립 및 미국으로 부터 옥수수 54,000톤 수입

북한에서는 지난해 11월 평양근교에 대규모 도계장을 건립, 육계업의 활성을 꾀하는 한편 지난 3월 15일 미국 수출상사인 바틀렛사로부터 54,000톤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물량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카길사의 수출엘리베이터로부터 선적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양을 수입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수급시장의 악화로 수입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로 부터 수입을 시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산란계 케이지 최소바닥면적 450cm²로 권장

호주는 최근 산란계의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산란계 케이지의 바닥면적을 산란계(성계) 2.4kg 기준하여 권장바닥면적을 600cm²로, 최소바닥면적을 450cm²로 지침서를 만들어 '96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대양축가 홍보를 하고 있다.

호주는 연중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바닥 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권장바닥면적은 549cm²이며, 최소 바닥 면적은 412cm²로 정해져 있다.

캐나다

버스정류장에서 부화 소동 벌어져

최근 캐나다의 몬트리올 근교 버스정류장에서 보관중인 박스안에서 오리새끼들이 부화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스에 포장된 오리알(480개)은 오타와에서 버스와 배편으로 몬트리올의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되어 보관중에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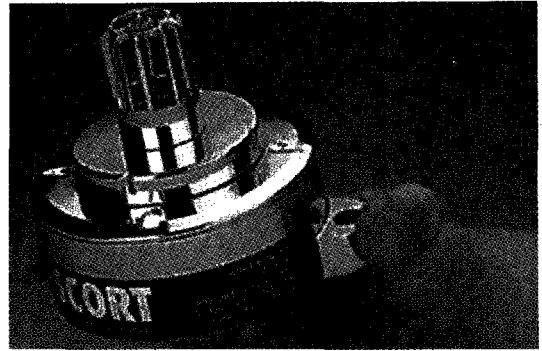
10일이 경과한 후 터미널의 한 고용인이 박스안에서 삐약거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 박스안을 확인해 보니 오리들이 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식가들을 위해 수정란을 특별 주문한 한 업체가 물건이 보내졌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관장소가 우연히 부화온도와 맞아 부화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있는데 태어난 오리새끼들은 맥길대학교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온도와 습도 자동탐지기 개발

네덜란드의 한 회사에서는 농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장내에서 간편하게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선보였다.



이 기계는 전자방식으로 계사내에 설치해둘 경우 기계내부에 메모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시간이 지난후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계사 내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시킬 경우 그래프를 통해 계사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농장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스라엘

닭고기 절단 로봇 개발

이스라엘의 엘라드사는 최근 닭고기는 물론 타음식들을 다용도로 절단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은 세밀한 칼날을 사용한 물분사공법으로 전 과정이 컴퓨터로 작동되는데 도계육, 닭고기, 물고기, 야채, 구워만든 상품 등이 요구되어지는 형태와 모양으로 절단되어진다.

이 로봇은 미국의 닭고기 도계전문회사인 칙펠렛사에서 실험중에 있으며 곧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